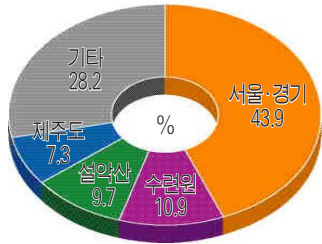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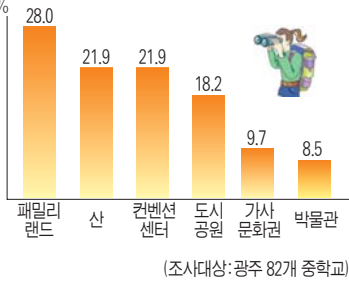
역사·자연 현장학습 → 놀이시설 이용 수학여행·소풍 의미 변질됐다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과 소풍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역사·문화 유적지에서 현장학습을 하던 수학여행이나 산·바다 등 자연을 찾던 소풍 장소는 대부분 놀이시설로 바뀌었다. 광주 시내 82개 중학교의 수학여행과 소풍 실태(2학년 기준)를 전수조사했다. <표>

■ 수학 여행지



■ 소풍 장소



자동차·여천산업공단을 견학 한 학교가 2개교였다.

◇문제점 없나=학교 측은 "학생들의 희망지를 최우선 고려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학부모 이모(여·44·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는 "국사 과목에 나오는 신라·백제의 역사와 유적을 보여주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경주와 부여를 다녀왔다"며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놀이시설로 가면 놀이기구 이용료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놀이시설들이 학생 수에 따라 입장료의 5~10% 내외를 사례금 형태로 학교 측에 되돌려주고 있는 것도 문제다.

광주의 한 중학교 관계자는 "놀이 시설들이 돌려준 돈은 대부분 인솔 교사들의 회식비와 '상납' 등으로 사용된다"며 "일부에서 말하는 '불우학생 지원' 명목은 허울좋은 변명이고, 간혹 그 돈을 돌려싸고 내부에서 마찰을 빚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외 광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관람 및 응원으로 대신한 곳은 3개교, 기타

다음은 ▲중외·쌍암 등 도시공원 15개교(18.2%) ▲담양 가사문화관 8개교(9.7%) ▲박물관 7개교(8.5%) ▲압록·송산 등 유원지 6개교(7.3%) ▲리조트 5개교(6.0%) ▲보성 녹차밭·수련원·순천 낙안읍성 각 4개교 ▲생태공원·사찰·체험학습장 각 3개교 등 순이다.

이외 광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관람 및 응원으로 대신한 곳은 3개교, 기타

■ 광주 82개 중학교 전수 조사

수학여행 44%·소풍 28% 놀이공원

교육 효과 없고... '사례금' 잠음도

◇수학여행=광주시내 82개 중학교 중 B·M중 등 36개교(43.9%)가 서울 롯데월드·음인 에버랜드 등 놀이시설이 있는 서울·경기지역을 갔다. Y중 등 9개교(10.9%)는 청소년수련원, K중 등 8개교(9.7%)는 설악산을 택했다.

D중·D여중, S중·S여중 등 6개교(7.3%)는 제주도로 떠났다. 반면 치평중은 백제문화관, 중앙중은 경주를 탐방하는 등 역사 유적이 밀집된 곳에서 현장학습을 한 중학교는 극소수

였다.

여행기간은 전체의 93.9%인 77개교가 2박 3일이었고 ▲1박 2일 1개교 ▲당일 1개교 ▲3박 4일 1개교 ▲기타(계획 없음) 2개교 등이다. 수학여행 경비는 평균 11만546원으로 조사됐다.

◇소풍=전체의 28.0%인 23개교가 광주 패밀리랜드 놀이공원으로 갔다. 무등산·제석산·어등산 등 산으로 간 학교와 감대중 컨벤션 센터(디자인 비엔날레·과학축전)로 간 학교는 각 18개교(21.9%)였다.

도박으로 30만원 잃어

50대 가장 목 매 자살

성인오락실에서 생활비를 잃은 5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3일 오후 3시16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야산에서 이모(54·광주시 북구)씨가 밤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1년 전부터 성인오락실에 다녔는데, 최근 어머니가 모이돈 생활비 30만원을 잃고 무척 괴로웠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8년여 전 직장병 때문에 다니던 공장을 그만둔 후 식당 일을 하는 부인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식들과 생활해 왔으며, 주변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 1주일에 두어 차례 성인오락실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산초 학부모 '표준식단 체험'

광주시와 문산초등학교가 24일 문산초 강당에서 공동개최한 '비만 예방 및 관리교육'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 50명이 실물 크기의 음식 모형을 이용한 '표준식단 체험'을 통해 어린 자녀의 영양식습관 등을 배우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주 등 전국 문화재 3,000점 '씩씩이'

전문 절도범 14명 검거

2,100여 점 압수

나주와 영광 등 전국을 돌며 문화재를 훔쳐온 전문 절도조직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고택(古宅)·재실(齋室) 등에 있는 문화재 3천여 점을 훔친 정모(60)·김모(54)씨 등 5명과 장물을 처분해준 고미술품 취급업자 김모(44)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8월 29일 새벽 영광군 영광 향교(전 남유형문화재 제125호)에서 극약을 먹여 향교를 지키던 개를 죽인 뒤 고서적 3책(冊)과 제사용품 4점을 가져가는 등 전국 100여 곳에서 문화재를 훔친 혐의다.

전남지역의 경우 ▲영광 해주 오씨

재실 고서 5책 ▲나주시 나주향교 '대성전'(보물 제394호) 고서적 등 100여 점 ▲"이회주씨 고택 가구·고서적 5점 ▲" 나주 임씨 대종각 병풍·그림 등 10여 점 ▲" 이재대씨 고택 고서적 등 20여 점 ▲" 함평 이씨 '소택(古宅)·재실(齋室) 등에 있는 문화재 3천여 점을 훔친 정모(60)·김모(54)씨 등 5명과 장물을 처분해준 고미술품 취급업자 김모(44)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문화재와 예술품 2천100여 점을 압수하거나 구매자로부터 회수했으나 ▲정선 '산수화' ▲의재 허백련 '묵련'(墨蓮) ▲남농 허건 '죽림유가처'(竹林有家處) 등 900여 점은 찾지 못해 달아난 장물업자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원침 (7340) 김장동



휴대전화 요금 절감기 복제·유통

판매업자 13명 입건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요금이 싼 회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동 연결해 주는 '회선 자동선택장치'(automatic call router·ACR·사진)를 불법 복제해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국내 S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ACR(정품 3만원)을 중국서 불법 복제한 이모(53)씨에 대해 특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해 나섰고, 국내 판매업자 정모(여·4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이씨에게서 개당 5천원에 사들인 불법복제 ACR을 인터넷 등을 통해 2만원에 판매, 2억여원을 챙긴 혐



의다.

ACR은 휴대전화 충전 단자에 장착, 전화를 걸 때 통화료가 저렴한 기간통신사의 080망에 자동 연결돼 기존 통화 요금의 30~4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ACR의 기술 유희로 S사가 입은 피해 추정액은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진료비 깎아 환자 유인

40대 의사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장희희 판사는 24일 환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허모(4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4월8일부터 5월2일 까지 광주시 북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239명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고 한의사도 아닌 이 병원 종업원이 환자에게 '부항'을 시술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직원과 간통 이유 해고는 부당"



○회사 동료 여직원과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40대가 법원에서 구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24일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ACR의 기술 유희로 S사가 입은 피해 추정액은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씨의 간통행위는 취업규칙상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간통행위로 회사의 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직장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이 간통사실을 안지 10개월이 지나서야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

○박씨는 지난 2004년 A사 노조 위원장 시절 노조 여성 간부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다 다음해 3월 '회사 내 풍속을 해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사측으로부터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고.

/연합뉴스

RODEM 로템갤러리 - 직수입 엔탁가구 -

특가 SALE

가을맞이

로템갤러리

피입기탁상품행사

●진열상품 30%~최고 50% 할인

BIG

당첨까지 100% 할인 혜택

로템갤러리

문의전화: 02-629-093-1022